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2021. 01. 24. (나해) 제2252호

대구주보



국우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요나 3,1-5,10 **화답송**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제2독서** 1코린 7,29-3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14-20.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회개가 필요한 곳은 지금 여기, 이곳입니다



태전본당 주임 | 김상조 대건안드레아 신부

빵집에 들어서면 칩이 꼴깍 넘어가고, 커피숍에 들어서면 한 번 더 숨을 크게 들이쉬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곳에 더 많이 있을까? 시골일까, 도시일까? 부자 동네일까, 가난한 동네일까? 정치인들이 더 나쁠까, 평범한 시민들이 더 나쁠까? 남자가 더 나쁠까, 여자가 더 나쁠까?' 시골보다는 도시에, 가난한 동네보다는 부자 동네에,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정치인들 중에, 여자들보다는 남자들 중에, 그리고 나자렛이나 갈릴래아보다는 예루살렘에 나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예수님께서 회개를 외친 곳은 변방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갈릴래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리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인가요?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뭐가 나쁘다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마르코 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이라, 예수님의 탄생이나 성장 이야기도 없고,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나타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는데, 첫마디가 '회개'입니다. 회개할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회개하라 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시골에서도 회개를 외친 이유가 하나 있다면, 회개는 나쁜 사람이 나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 부자,

정치인, 남자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개혁의 대상은 저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 이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인아 미안해'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 그보다 더한 사건들은 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화물을 싣고,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도 굳이 위험한 지름길로 바다를 가다가 침몰하는 세월호 사건도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노란 불이 켜지고 빨간 불까지 켜졌어도 속도를 올려서 교차로를 지나가고, 기어코 마트, 은행, 시장, 병원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 차도에 차를 세우고,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없다고 그냥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불행한 사건들의 출발점입니다. 아이는 유치원에 맡기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데리고 온 첫째가 과성을 지르며 커피숍을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눈물이 핑 돌도록 꾸짖지 않는 한, 또 다른 소양 없는 유치원 교사는 둘째 아이를 쥐어박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회개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빵집이나 커피숍에서 한 번 더 향기를 음미하게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위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고 닳고 싶은 모습이 되게 한다면, 가난한 시골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 하신 예수님께 조금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문**

신박한 정리

교구 문화홍보국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집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현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시작된 개발 붐은 오늘날 집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을 가장 큰 이슈거리로 올려놓았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집이 단순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개념을 넘어 재산증식의 도구이자 부의 척도가 됨에 따라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내집마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는가 하면 심지어 계층의 구분과 차별이라는 사회 문제까지 야기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모 방송사의 '집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주제로 집 정리를 통해 공간을 재배치하고 집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박한 정리라는 기술(?)로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노하우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이참에 집을 정리해 보려는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쓰임새에 맞게 재배치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팔거나 나눔으로써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장터, 🍌마켓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박한 정리 10계명』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켜 보는 것도 생태환경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 ① 물건을 모두 꺼내어 필요 vs 욕구로 구분한다.
- ② 집안의 공간마다 '역할'을 부여한다.
- ③ 공간에 들어갔을 때 첫 시야에 '낮은 가구'가 보이도록 배치한다.
- ④ 물건들은 '비슷한 것들끼리' 같은 공간에 종류별로 보관한다.
- ⑤ 가장 좋은 공간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구를 배치한다.
- ⑥ 자주 쓰는 그릇만 꺼내어 세트처럼 보관한다.(특히 싱글)
- ⑦ 동선을 고려해 물건을 배치한다.(킵과 차는 정수기 주변에)
- ⑧ 한 공간 안에서도 작은 역할을 구분한다.(공부 vs 휴식)
- ⑨ 추억의 물건들은 사진과 서류 파일로 보관한다.
- ⑩ 집안의 구성원들끼리 물건의 위치를 약속한다.

(『tvN 신박한 정리』에서 발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과잉으로 갖고 있고 낭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넘쳐나는 재화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다양해지는 만큼 정서적으로도 피로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주변 정리를 통해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높여 간다면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로**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7)

중방분당 | 염호산 레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 중방성당에 다니고 있는 12살 염호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5살 터울의 형이 있는데 형은 공부 때문에 타지에 가 있어서 거의 외동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늘 가족 같이 지낼 수 있는 성당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전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당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지금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이 옆에서 격려해 주고 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큰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영성체를 준비한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7)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용돈을 아껴 그 친구에게 줄 묵주도 샀습니다. 첫영성체 예식은 교중미사 중에 하는데 미사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축하해 주러 간 몇몇 형들은 미사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미사를 함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것 같아 그 형들의 팔을 끌어당겨 미사에 함께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오시지 않아 그 친구의 어머니, 성당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 친구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줬다는 생각에 저도 기쁩니다.

형이 멀리 있어서 혼자 지내던 저에게 형제가 되어준 성당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궤문**



※ 본 내용은 2021년 대구주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원고 공모 당선작입니다.

강완숙(姜完淑) 골롬바는 1761년 충청도 내포 지방에서 양반의 서녀(庶女)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지혜로움이 뛰어나고 정직하였다고 한다. 1801년에 순교한 홍필주 필립보가 그녀의 아들이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게 된 그녀는 신앙에 관한 책을 얻어 읽는 가운데 그 신앙의 위대함을 깨닫고 “천주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 종교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올바르게 그 도리가 반드시 참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이후 골롬바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극기를 바탕으로 교리를 실천해 나갔으며, 1791년의 신해박해 때에는 옥에 갇힌 신자들을 보살피 주다가 자신이 도리어 옥에 갇힌 적도 있었다. 또 그녀는 시어머니와 전처의 아들인 필립보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켰다. 그러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만은 입교시킬 수가 없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던 그녀는 시어머니와 아들 필립보와 함께 한양으로 상경하여 신자들과 왕래하면서 생활하였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게 되자, 골롬바는 주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여회장으로 임명되어 신자들을 돌보게 되었다. 1795년 을묘박해가 일어나자 골롬바는 자신의 집을 주 신부의 피신처로, 신자들의 집회 장소로 내놓았다. 골롬바는 지식과 재치를 겸비하였으므로 여러 사람들을 권유하여 입교시킬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지체 높은 양반 부녀자들도 있었고, 과부, 머슴, 하녀도 있었다. 왕실 친척인 송 마리아와 며느리 신 마리아가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게 된 것도 골롬바 덕택이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골롬바는 4월 6일(음력 2월 24일) 집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같이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갔다. 그녀의 굳은 신앙심은 형리들조차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감탄할 정도였다.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녀의 나이는 40세였다. 형조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렇게 죄목을 붙였다. “강완숙은 천주교에 깊이 빠져 이를 널리 전파하였고, 6년 동안 주문모를 숨겨주면서 남녀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 천주교에 물들게 하였다.” 이에 대해 골롬바는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을 하였다. “이미 천주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즉 천당)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강완숙 골롬바
(1761 ~ 1801년)

2021 대구주보 개편 안내

- 1면 교구 내 본당 소개 - 서원만 베르나르도 그림 (대리구 별 가나다 순으로 연재됩니다)
- 2면 주일의 말씀 - 신부님들의 강론
- 3면 강수원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 / 교구 사회복지회의 『더불어 사는 세상』
박병규 신부의 『성경 속의 여인들』 / 생태환경 이야기 『보시니 좋았다』
- 4면 『말씀의 터』 - 교구 내 성경 모임 소개 / 『바티칸 소식』 - 교황님 말씀
『문화와 영성』 - 신간, 전시 등 문화 소식 /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 수기
- 5면 『믿음의 길』 - 124위 순교 복자 약전

2021~2022
하느님 말씀을 따라



주교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통독 40주간으로 초대합니다.

2021~2022년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대구대교구 주교님들과 함께 친구약 성경 전체를 40주간 동안 읽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혼자서 읽기 어려운 성경, 함께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매일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홈페이지(<http://bible40weeks.org>)나 우측 하단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 : 2021년 4월 4일(주일) ~ 2022년 2월 5일(토)

동영상 강의 강사 : 여한준 롯데로 신부(대구대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신청기간 : 2021년 1월 22일(금)~ 3월 14일(주일)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bible40weeks.org>)를 통한 개인별 가입 및 신청

신청비 : 4만원 문의 : 교구 사무국(053-250-3057)



성경말씀을 있는 그대로



미사 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월 25일(월) 11:00 도량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월 26일(화) 19:30 다사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25일(월) 11:00 계산성당		1월 27일(수) 10:00 죽도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월 26일(화) 14:00 신암성당		1월 27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성소 | 피정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2,6(토) 18:00~7(일) 11:00

장소: 서울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개별 상담 및 만남

대상: 국내외 전교와 봉사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교육 | 모집

가톨릭ON(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강좌오픈: 2.15(월)

얼리버드 할인혜택: 1.15(금)~2.14(일)

국내최고 저자강의

문의: (02)945-3300 / (010)3092-1108

<http://www.catholicon.co.kr>

예수회 '몸 신학' 고리 해설 동영상 강의

강사: 김혜숙(막시마) 선교사(신학 박사)

한 학기 12회 동영상 링크 발송(3월 개강)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특별 이벤트

2021년을 말씀과 함께

1과목 수강료로 2과목 공부를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일시: 2~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대상: 15세 이상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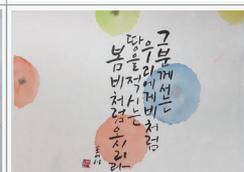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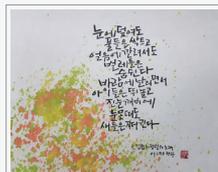
문의: (02)828-3600

여성교육관 갤러리981 전시회 캘리그래피 & 문인화 「소동전」

일시: 2021년 1월 18일(월) ~ 1월 29일(금)

장소: 갤러리1981(교육원 다동 1층 가톨릭여성교육관 내)

작가: 박나현 아녜스



38년 전통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743-4488 M. 010-3530-7467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난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일월매트총판 | 온수매트
한일의료기 |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차잔 1층 239호

모든 면에서 편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3요한 1,2)

전인병원

☎ 대표전화 | 1688-7667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현 연세대 외래교수) 박중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서재신(베드로)·장주현(비바인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가람소방방재(주)

-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연피노비즈니스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3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현수(바오로) 신부
2000년 1월 24일
- 엄택기(에밀레오) 신부
1952년 1월 27일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고3~대학일반 모임

고3~대학·일반 모임: 1.31(일) 14:00

장소: 교구 별관 대화합실

입시반 모임 희망자는 1월 27일까지

성소국으로 신청: 250-3071

2022년도 신학교 입학 희망자는

1월 모임에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발현 88주년 기념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1.28(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교육 | 모집

교구 심리상담소 소람, 재능 기부

전문상담사 모집

자격: 관련학과 석사 및 2급 자격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제출: kim-sinbu@hanmail.net

마감: 2.5(금) / 문의: 250-3100

2021년도 1학기 가톨릭신학원 수강생 모집

성경과 가톨릭 신학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강좌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교육합니다.

개강: 3.1(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2021년 겨울사성서모임 신입생 모집

개강: 3.2(화)

구약반: (금) 10:00, (화) 20:00

신약반: (월) 10:00, (목) 20:00

심화반: (금) 10:00, (월) 20:00

문의: (010)4106-4627 / (010)7520-4627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구약과 신약): (목) 10:00, 19:30

다시 읽는 구약성경(통독반): (수) 14:30

심화(성문서): 월 10:00, 19:30

문의: (010)3311-2672

(010)8243-0195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780-453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원서마감: 2.10(수)

과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채용 | 안내

초전성당 사무장 채용(정규직)

대상: 1종 면허소지자,

PC사용 가능한 분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마감: 1.24(일)

문의: (054)932-8021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7~9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힐스피부과
색소·여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 상 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탑병원 3층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공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